



School of Economics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m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제009 호 발간일 :2003 년 11 월 12 일

→ 신입교수인사말

경제학부 소식/지

- 신입교수인사말
- 경제학부소식
- 학부기고
- 학부생기고
- 상대기고문

신임교수 인사말

경험과학으로서의 경제학
김재영(경제학부 부교수)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저는 2002년 9월 경제학부에 임용이 되어 이제 두 번째 학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공은 계량경제학이론과 응용거시경제학 분야입니다. 10년을 훌쩍 넘는 세월을 외국에 있다가 지난해 가을에 귀국하게 되었는데 귀국한지 1년이 채 못 되었지만 벌써 외국에서 보낸 세월은 기억 속으로 아득하게 멀어져 가는 듯합니다. 선인들의 말씀대로 한 인생도 이와 같이 일장춘몽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지면을 통하여 드릴 말씀은 경제학의 경험(empirical) 과학적인 측면과 그 방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경험과학적 측면이란 그 사고의 체계가 (논리적 정합성 뿐만이 아니라) 현실적 타당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 지녀야 할 필수 요건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제행위나 경제현상에 대해 선험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경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현실의 중요한 정보를 정확히 분석하여 그에 부합되는 사고의 체계 또는 경제분석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무시하는 경제학이론이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이해에 근거하여 세워진 경제학이론은 있을 것입니다. 대공황을 설명할 수 없었던 고전학파이론과 70년대의 stagflation 현상을 초기에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던 당시의 경제학이론들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지요. 현실에 대한 부정확한 혹은 불충분한 이해는 경제행위나 경제현상과 관련한 선험적 또는 경험적 정보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학에서의 경험적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은 물리학을 포함한 모든 과학의 분야 중에서 양을 가장 많이 다루는 (the most quantitative) 학문이다" 라는 쉘페터의 말대로 경제학은 양, 즉 수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반 경제활동의 결과가 수치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경제활동의 결과가 수치로 기록된 것이 자료(data)이고 경제학에서의 경험적 분석은 바로 이러한 수치, 즉 자료를 분석하는 일입니다. 오래된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학의 할아버지' 아담 스미스의 國富論이 처음 출간된 것이 1776년이고 대략 이를 전후한 시기를 근대경제학의 태동기로 보고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77년전인 1699년에 이미 data 분석을 통해 가격-수량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 경제행위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고 필수적인 행위의 하나이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한 접근이 경험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도 모릅니다.

1986. On the King-Davenant 'law' of demand.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33, Au 'King의 법칙'으로 불리는 이 분석의 결과는 J. Creedy의 논문에 잘 설명되어 있다. Creedy, J. gust, 193-212.

경제학의 경험적 분석 즉 data 분석을 위한 기법은 계량경제학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적 data 분석의 역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16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계량경제학이 경제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즉, 1930년대와 1940년대에 계량경제학회(Econometric Society)와 미국의 Cowles Commission, 그리고 영국에서 응용경제학부(Department of Applied Economics)가 발족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초기 계량경제학의 시기로부터 기념비적인 업적들이 이루어진 했지만 계량경제학의 이론적 발전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근 20여년에야 비로소 복잡한 경제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계량경제학이론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경험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의 시계열분석기법들, 이산적 또는 제한적 종속변수 모형 (models of discrete dependent variables, models of limited dependent variables), 패널자료의 분석기법들, 베이지안의 방법들, 각종 수치적 분석방법들(numerical methods)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지요.

경제학에서 경험적 분석을 담당하는 계량경제학의 발전이 비교적 느린 속도로 진행되어 왔던 이유는 계량경제학이 data 분석을 위한 통계학적 기법, 계산(수치처리)기법, (선험적) 경제이론 등 세 가지의 總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계량경제학적 이론의 급속한 발전은 고성능 컴퓨터의 발전이 가져다 준 계산기법과 계산능력의 급속한 향상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산능력의 급속한 향상, 새로운 통계기법의 개발, 경제학이론 모형의 발전이 연쇄적으로 상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량경제학의 이러한 최근의 발전 추세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경제학도들은 경제학이론의 현실성 논란과 현실 설명력에 대한 의문 등에 대해 보다 자신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data에 들어 있는 경제현실의 정보를 소중히 여기고 진지한 자세로 정확하게 분석하여 정직하게 해석, 보고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정확함이란 수치처리과정의 정확함뿐만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그에 맞는 올바른 분석방법을 제대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경험적 경제학 연구에 임하는 몇몇 대가분들의 진지하고 엄격한 자세, 작은 한 줄의 data정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확성을 기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저의 지도 교수님이셨던 Christopher Sims 교수님께서 언젠가 제게 적절한 분석법에 의한 data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사고의 체계는 경제학이론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많은 계량경제학 기법들 특히 최근에 개발된 기법들은 어렵고 복잡하여 여전히 일반인들에게는 유용 가치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개발된 분석기법들까지도 어느 정도의 계량경제학적 지식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으며 대부분 인터넷을 통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학의 경험과학적 측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함과 동시에 위에서 말씀드린 경험분석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제 경험분석에 얼마만큼의 정성과 시간을 들이느냐에 있겠지요.

그 동안 몇몇 분들로부터 우리 현실에 맞는 경제학의 필요성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의 수나 일반인들의 경제현실 또는 경제학에 갖는 관심도로 볼 때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경제학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제학의 경험과학적 측면에 대한 이해와 경험적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확하고 진지한 분석작업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UP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SCHOOL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지난호 바로가기 제9호 ▼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m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 경제학부소식

경제학부 소식/지

·신임 교수인사말
·경제학부소식
·학부기고
·학부생기고
·상대기고문

학부행사

1. 교무

- 1) 2002학년도 전기 졸업식
- 2002. 2. 26. 문화관 중강당
- 학위수여자
박사 : 이석기 외 3명
석사 : 정무섭 외 19명
학사 : 최자원 외 151명
- 2) 대학원 석?박사 논문심사 (2002. 5. 12. ~ 6. 10.)
- 박사 : 3명, 석사 : 9명

2. 학생

- 1) 200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생 배정
- 학부 : 발전기금(특정 4명), 전액면제(22명), 기성회비면제(88명), 수업료면제(222명)
계 336명(전체 학생의 38%)
- 2) 2003학년도 1학기 향상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 2002. 3. 27. 태평로빌딩 27층
- 수혜자 : 경제학부 20명

3. 입시

- 1) 2003학년도 대학원 전기 모집
- 2002. 11. 24.
- 석사과정 67명(연구자 35명, 전문가 32명), 박사과정 7명 합격
- 2) 2003학년도 경제학부 전공진입생
- 198명 선발

4. 행사

- 1) 하버드대 배로(Robert Barro) 교수 초빙강좌
- 2003. 5. 6 ~ 5. 21 - 강연내용 : 경제성장론 강의
- 2) 스티글리츠 교수 특별 방문강연
- 2003. 2. 24
- 3) 김태성기금 특별강좌
- 2002. 12.12 ~ 12.19
- 강사 : 안동현(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교수)

▲ UP





경제학부 소/식/지

· 신입 교수인사말
· 경제학부소식
· 학부기고
· 학부생기고
· 상대기고문

대학원 상념

경제학부 2003~20281 박지영

4년 전 5월, 이맘 때 나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전혀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4계절이 뚜렷한 하지만 번덕이 심해 4월에도 눈이 휘날리는 걸 보면서 어이가 없었던 터라 5월 느낌막이 찾아 드는 봄은 너무도 반가웠다. 날씨가 풀리고 교통편도 익숙해지자 나는 길눈도 틈을 겸 따듯한 햇볕을 받으며 술을 도심에 볼 일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여유로웠고, 경찰관은 반바지에 사이클을 타고 순찰을 돌았다. 5대 호중 하나인 바다 같은 온타리오호수를 끼고 평원 위에 세워진 도시, 토론토, 그 중심부엔 비록 뉴욕과 같은 거대한 마천루의 군락은 아니지만, 빼어난 모습을 자랑하는 CN 타워와 7~80층 정도 높이의 빌딩들이 누군가 박아 놓은 비석들처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었다. 겨우 자동차 한대 정도 너비의 공간을 사이에 두고 사이 좋게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거대하고 때론 멋들어진 고층 빌딩들은 외로운 63빌딩에 익숙한 나에게는 꽤 흥미로웠고 몇 가지 궁금증을 던졌다. 저처럼 높은 건물들을 어떻게 저렇게 좁은간격으로 함께 세울 수 있었을까, 저 드높은 빌딩들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주변에 높은 건물도 별로 없는 이 평지 같은 도시에 웬일로 도심 한가운데만 이렇게 고층빌딩이 모여있을까 등등이었다. 첫 번째 의문은 건축에 문외한인 나에게 풀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의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풀 수 있었고, 그 답들이 한때는 학업을 중단하려 했던 나를 오늘에 여기 대학원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하면, 과연 믿어줄 만한 얘기가 되겠는가? 미래를 정할 수 없던 불안과 초조함 속에 무언가에 대한 두려운 심정으로 내려앉았던 이국의 땅에서 나는 그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여유와 꿈을 찾았고, 지금도 그것은 내 안에서 나의 어머니처럼 지친 나를 감싸준다.

경제전문과과정(Business Economics Program: BEP)이라는 것이 석사과정에 새로 생겼단다. 세부과정은 금융전문가와 산업전문가로 나누어지고 각각 실무연구에 정통한 전문가양성에 비중을 두고서 운영이 된단다. 그레 바로 저것이다. 경제 전반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에 두고 자신이 관심을 둔 분야를 보다 현실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커리큘럼, 내가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런 과정이었다. 미련 없이 지냈었고, 새로 생겼으니 좀더 두고 봐야한다는 주변의 목소리는 그닥 신경쓰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 생겼기 때문에 가고 싶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제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데에 직접 동참하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초봄부터 시작된 대학원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바쁘고, 어려우며, 유쾌하게 진행중이다. 공부할 시간, 잠잘 시간은 부족한 대신 학업의 깊이와 폭이 커졌고, 배움에 진지하고 가르침에 열정적인 이들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기쁨과 희망이 되었다.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최신 연구나 업계 동향을 전해주는 수업, 교수님의 열강으로 심도있게 이루어지는 필수전공 강의 또한 만족스러웠다. 비록 내가 바라던 만큼의 완벽한 연구환경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나 자신이 목적인 바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나 자신도 노력하고 있고, 신실과정을 준비하신 교수님들의 애정도 각별하다. 이에 따라 BEP를 포함한 대학원생에 대한 다방면의 추가적인 연구지원도 기대하고 있다. 전반기에 이루어졌던 대학원 연구실 지원사업과 같은 구체적인 학부 자체의 지원과 자치활동이 원활하게 조화를 이룬다면 연구자 과정, 전문가 과정이 함께 경제학부 대학원의 양 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며칠 전, 대학원 체육대회가 자치회의 주최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근래에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드물었다고 하는데, 과거야 어쨌든 더불어 땀을 흘리고 몸을 부딪히며 뛰어보는 것은 온 몸이 쉬는 근육통을 비용으로 지불하는 대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오래가는, 어색했던 대학원 학우들 끼리의 미소어린 눈인사와 일체감, 교수님과 편안한 대면의 자리를 갖게 해줌으로써 연구실에서 낮과 밤을 보내던 우울함의 흔적을 말끔히 없애 준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자치회에 감사드린다.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를 통해 그 내실을 쌓아나가는 것이 1차적으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소화해 내고 있는 우리 경제학부 대학원생들은 2차적으로 다른 방면에서 활력을 충전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교수님들과의 대화나 연구실간의 교류가 1년에 두 세 번 정도 있게 될 대학원 전체 행사나 모임등의 자치회 사업을 통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1년 전에 무언가 해보려고 몸을 잊고 뛰다가 덜컥 병에 걸린 적이 있다. 덕분에 준비하던 것이 몽땅 무위로 돌아갔다. 하지만 2달 정도 집에서 쉬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진 않았다. 오히려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고 계획대로 착착 되지 않았다고 초조해 하던 병은 많이 사라졌다. 그렇다. 그게 더 내 앞길을 가로막는 병이었다. 뜻하지 않게 휴식을 취하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바라던 공부를 하게 된 지금은 예전에 비해 훨씬 바쁘긴 해도 별로 갑갑하진 않다. 많이 힘들기도 하고, 성적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참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공부하게 된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단단하게 생각하고 있다. 주변에 훌륭한 학우분들 계신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지만, 한번 탄성계수를 초과해서 위험지경에 이르러 보고 나니 제 나름대로 적응하기 위해 생긴 마음자세다.

많은 분들이 왜 머리를 식бал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이에 대답하기 위해선 다시 캐나다로, 아니 그보다 더 먼저로 돌아가야겠다. 토론토행 비행기로 중간 기착지인 앵커리지에 내릴 때 보았던 새벽녘의 시커먼 베링해와, 점점 더 짙어 가는 원유채취선의 불꽃, 그리고 새하얗게 끝없이 펼쳐진 알래스카의 설원이 바로 내가 머리를 짚는 이유이다. 충분한 설명이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것이 내가 간직하고 싶은 무언가를 표현하는 데 가장 근접한 설명이라고 생각된다. 역시 명확히 설명되진 않지만, 북미 어느 도시에 세워진 자본들의 거대한 실체가 나의 자유의지를 자극했고, 그래서 나는 그 거대한 비석들을 향해 가고 있다. 약간은 신화적인 이유로 오늘날 연구실로 향하는 나의 대학원생활은 나에게는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생명수를 공급하는 오아시스와 같다. 여러분들께는 과연 이 생활이 어떤 의미일지 새삼 궁금해진다. 오가다가 마주칠 때 미소에 담아 전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School of Economics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m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제009 호 발간일 : 2003 년 11 월 12 일

→ 학부생기고

경제학부 소/식/지

- 신입 교수인사말
- 경제학부소식
- 학부기고
- 학부생기고
- 상대기고문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법

경제학부 4학년 박선영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은 특별히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본인이 대학생활을 4년동안 하면서 느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위주로 쓴 글이 많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았으면 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Who are you?)

당신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Why are you here?)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의 많은 종교들이 인간에게 묻는 근본적인 질문도 바로 이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볼 정성적·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 따라서 대학입학 후 1,2학년은 대학생이라는 들뜬 기분에 보내고, 3,4학년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고민하며 보내는 경우가 많다. 사실 성공적인 진로 결정은 자기성찰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시작단계로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설레이는 분야를 찾아서 경험하고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다보면 자신의 가슴이 원하는 바를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대학생으로의 권리를 모두 누렸으면 한다.

대학생이라는 지위는 참으로 많은 특권을 제공한다. 우선 시간관리만 잘 하면 자기 자신에게 거의 무한한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여러 기회를 찾아다녔으면 좋겠다. 해외로 배낭여행을 가던지 국내에 무전여행을 떠났던지간에, 여행은 시야를 넓혀주고 다양한 경험으로 인생을 풍부하게 가꾸어 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환학생제도, 여러 기관에서 개최하는 대학생 논문공모상과 해외견학프로그램 등 찾아만 보면 자유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열리는 많은 강연회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유익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강연회를 쫓아서 찾아다니면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실질적인 조언을 많이 얻으리라고 장담한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선배님이신 교수님들에 예의를 갖추고 찾아가 여러 가지 상담을 드리는 것도 대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대학생으로의 의무 또한 다했으면 한다.

우리가 대학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공부를 잘 해서였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베풀 차례이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도 동아리에서 봉사활동을 간다면, 학교에서 장애인학생을 안내하는 일에 자원한다면, 배고픈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해 1000원을 모금하는 일과 같이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 또한 요즘은 국제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잘 되어있는 만큼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돕자. 선행을 베푸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며, 선행을 베푸는 가운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로, 체(體)?덕(德)?지(知)가 균형잡힌 사람이 되기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얼마 전에 조순 명예교수님께서 강연회에서 "존 로크는 그의 저서 <교육에 관련한 몇 가지 생각>에서 체(體)?덕(德)?지(知) 순서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 즉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한 신체이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마음이 깃든다는 옛말이 있듯이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건강과 체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인성과 덕성이다. 학문을 배우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 그 지식이 온전한 덕을 지니지 못한 사람에게 있다면 제대로 쓰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덜 중요한 것이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공부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다들 너무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부에만 치우치지 말고 체(體)?덕(德)?지(知)가 균형잡힌 성숙한 대학생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꿈을 있는 힘껏 크게 가졌으면 한다.

우리는 대학생이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큰 뜻은 큰 일을 해낸다. 꿈은 인생의 중심을 찾고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 준다. 꿈이 있다면 사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허무하다고 한탄할 겨를이 없다. 단 주의할 것이 있다. 먼저 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꿈을 일단 세웠으면, 꿈을 위해 자신의 능력의 100%를 쏟아서 자신의 꿈이 한낱 공상에 지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꿈이 너무 터무니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 비야씨의 다음의 말이 뇌리에 남는다. "자신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묵묵결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대학교 4년은 참 길고도 빨리 지나간다. 마지막으로 경제학부 모든 학생들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보냈으면 하는 바램이다.

▲ UP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SCHOOL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지난해 바로가기

제9호 ▼

For further SNU School of Economics CNIL & rights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main information





경제학부 소/식/지

·신임 교수인사말
·경제학부소식
·학부기고
·학부생기고
·상대기고문

산행의 즐거움

저는 요즈음에 생활하는데 커다란 즐거움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주말에 틈나는 대로 집 근처에 있는 대모산에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내만 종종 따라 나섰지만 지금은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도 동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당초 바쁜 일상의 생활속에서 체력유지에 도움이 될까하고 운동 삼아 시작했지만 단순한 건강관리에 비할 바 없는 여러 가지 재미가 새록새록 돌아옵니다.

대모산은 좋은 산입니다. 집 근처에 있어서 좋고, 300m에 조금 못미치는 나지막한 높이가 만만하게 생각되어서 좋고, 한자이름(大母山) 또한 마음을 아주 푸르게 합니다.

저는 산행을 하면서 스스로에게서 배우고 산에서도 배우고 그리고 산길을 오가며 스치는 많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배웁니다. 일단 산길을 걷는 시간은 세상사는 이치를 찬찬히 곱씹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인생과 세상살이를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지러운 생각을 정리하고 평정심을 회복하며 꼬여있는 문제의 본질과 참 뜻을 음미하다 보면 의외로 쉽게 생각이 정리되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생생한 흙의 촉감에서 내가 건강하게 숨쉬고 있음을 느끼고 이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사무실의 콘크리트 바닥을 걸을 때나 간혹 골프장의 잔디를 밟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또한 건강에 생각이 미치면 무슨 연유에서인지 홀로 남으신 어머님 생각이 납니다. 어머님에 대한 고마움을 늘상 되새기게 하는 것 또한 산행의 소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모산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산꼭대기에 오르면 한강이 내려다보이고 맑은 날에는 서울 북쪽의 북한산도 볼 수 있습니다. 浩然之氣라고 얘기할 것까지야 없겠지만 세상을 한번씩 굽어볼 수 있는 여유로움은 숨차게 앞을 보고 달리는 순간 순간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비운 다음 날 이외에는 뿌연게 스모그에 덮여있는 서울 북쪽을 바라치면, 저쪽에서 이쪽을 보더라도 비슷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산행에는 점수를 매기거나 순위를 정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운전할 때는 서로 차머리를 들이밀려고 난리지만 산행에서는 각자 자기 발걸음에 맞추어 속도를 조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흔쾌히 옆으로 비켜줄 수 있는 넉넉함이 좋습니다.

산에 다니다 보니 안치환씨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적어도 '꽃보다 나무가 아름답다'는 생각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꽃은 화사하지만 웬지 일회성인 것 같은 점이 영 흠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자리에서 매년 꽃을 입고 꽃을 벗고 하는 과정을 묵묵히 반복하면서도 내면으로는 꾸준히 나 이태를 만들고 자라나는 나무가 진국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우뚝 버티고 서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위안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가족과 함께 하는 산행의 장점중 가장 으뜸은 역시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소중한 기회라는 점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진심을 전달하고 속내를 자연스럽게 털어놓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절감하고, '아내와 아들에게 존경받는 家長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덕목이다'라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아내와 아들이 딱히 주말을 기다리지 않았는데 요즈음은 은근히 기다리는 눈치입니다. 저는 아들을 좋아합니다. 마흔을 갓 넘긴 뒤에 얻은 오줌말로 늦둥이여서 좋기도 하고 하나 뿐이어서 좋기도 합니다만 특히 저를 닮아서 그런지 뛰어나지도 않은 녀석이 벌써부터 제법 여유를 부리고 능청스럽게도 해서 좋아합니다. 저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무엇보다도 편안함을 주는 대모산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푸근하고 따스한 정감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실하고 치밀하게 자기의 생활과 삶을 가꾸면서도 재주를 앞세워 세상살이의 분별을 흐리지 않는 자기절제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또한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성실함과 세상을 보는 통찰력으로 땅에 굳건하게 뿌리박은 나무처럼 속된 세상의 상식에 휘둘리지 않는 강건함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산행에서 나누었던 얘기들과 산과 나무에서 보고 느낀 경험들을 이 녀석이 내 품을 떠난 뒤에도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해 주었으면 합니다.

산 정상을 향한 산행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인생'이란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행의 길이 아니며 삶 그 자체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즐거운 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를 마음껏 음미하고 즐기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동문들은 아무래도 사회에서 남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혜택을 받은 만큼 숲에 있는 나무처럼 듹적하고 묵묵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숲을 즐기기에 요즈음이 제철입니다. 초록에 둘러싸여 싱그러움을 즐기며 청량감과 개운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 아닐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말에는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애인의 팔짱을 끼고 초록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